



日, 2분기 지류 생산 및 출하 증가 음료 및 포장재 소비 늘어

일본의 2분기 종이 및 판지 생산과 출하가 경제 회복 기조에 힘입어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발표된 경제 리포트에 따르면 실업 지수가 4년만에 최저치인 4.6%를 기록하는 등 산업경기 개선이 본격도에 진입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 및 임금상승과 같은 요소들은 소비자 지출을 확대해 제지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온도상승으로 인해 음료 및 관련 포장재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신문용지의 경우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의 영향으로 생산과 출하가 각각 5.2%, 3.2%가 늘어나 가장 왕성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인쇄용지의 경우 출하는 1.4% 정도 늘었으나 생산량은 1.2% 감소했다.

이미 메이저 인쇄용지 업체 두 곳이 올 하반기에 백상지와 경량도공지 가격을 인상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바이어들은 인도네시아와 같이 예전보다 개선된 품질과 보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수입지 가격 동향에 따라 움직임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미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강세가 계속된다면, 지류 수입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 내수 생산업체들의 가격인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美, 제지시장 호황 수출 증가 및 수입 감소로 내수 시장 개선

미국 제지업계가 수년간의 악재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현재 상황이 과연 '좋은 시절'로 볼릴 만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호재가 넘쳐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지업계에 빠른 회복세가 진행,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주량은 크게 늘어났으며 예상대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미 달러화는 경영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수출증가, 수입감소와 더불어 개선되고 있는 내수는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었던 미국 생산업체의 숨통을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지종에 걸쳐 가격이 인상됐으며, 출하 또한 늘어 상승세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쇄용지의 경우 올해 1분기가 시작되면서 출하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으며, 이러한 추세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달러화의 약세로 인해 수입량은 감소해 공급상황은 매우 타이트한 실정이다. 물론 이런 상황은 유럽 생산업체들에게는 나쁜 소식임이 분명하지만, 몇 년간 수요부진과 수입증가로 타격을 받아 왔던 미국 생산업체들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전반적인 경기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는 박스 출하 또한 인쇄용지의 활황

세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으나 신문용지의 경우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볼 때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신용평가 기관인 S&P(Standard & Poors)는 올해 남은 기간동안 일부 지종의 생산업체들이 추가적인 가격인상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런 가격 및 출하증가는 그동안의 부진으로 인해 바닥에서 치고 올라 오는 것이니 만큼 상승세의 규모나 지속시기가 어느 정도 일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인 경기회복 추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제지업체 관계자들은 지류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장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함부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GDP 성장세 보다 낮은 지류수요,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남미산 저가 펄프, 여전히 수면아래에 있는 시설투자 노력 등의 구조적 문제점들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특히 미국 펄프 제지업계가 그동안의 어려움으로 부터 잠시 벗어나게 된 이 '유예기간'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업체들이 구태를 답습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인지 혹은 새로운 프로세스와 신제품의 개발, 시장 개척 등의 노력을 통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인지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유리한 시장상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고품질의 지종 및 다양한 지류 생산에 재투자해 업계의 성장이 지속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미국 제지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亞, PET칩 대 EU 반덤핑관세 면제될 듯 날씨 회복, 수요증가 관건

PET칩의 유럽내 판매가격이 금년들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PET칩의 주요 수요 산업인 유럽의 PET병 시장이 나쁜 날씨때문에 금년들어 다소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럽내 전반적인 판매가격 역시 금년 2분기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시험하고 있는데, 일부 업체는 PET 가격 인하가 관련 업계에서 암묵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사실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유럽 PET칩 생산업체는 금년 PET칩 판매가격을 톤당 20유로 정도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지만 금년 2분기들어 실제 판매가격은 오히려 계속 하락해왔다. 지난 7월중 판매가격도 paraxylene의 경우 톤당 5유로 정도 하락한 6백30유로로 거래됐으며, terephthalic acid는 톤당 8백40~8백70유로로 거래됐다. 그러나 시장 전망 자체는 낙관적이어서, 업계 소식통들은 날씨가 다시 회복되기만 한다면 곧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판매가 회복은 순전히 시간문제라는 입장이다. 7월중 톤당 5유로 하락한 paraxylene도 당초 예상보다는 가격 인하폭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정황중 하나이다. 현재 PET칩 제조업체는 그간 줄었던 마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톤당 50유로 정도 가격이 상승해야 한다고 희망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EU 집행위는 금년초에 중국산 PET칩에 대해 12.6~29.5%, 파키스탄산에 대

해서는 14.8%의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했지만 곧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대상업체는 중국의 2개사와 파키스탄의 1개 수출업체로 아직 구체적인 기업명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유럽, PVC 가격 급등세 지속 독일 시장확대 주도

유럽의 PVC 레진 소비자 판매가격이 수요 증가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Iberian PVC Forum에 따르면, 서유럽 국가들의 PVC 소비가 올 들어 크게 늘어, 서유럽에서는 1~5월 중 5% 이상 수요가 증가했으며, 동유럽국가는 이보다 훨씬 높은 20% 이상의 수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요 증가세는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1.9% 증가세를 보인 것과 큰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서유럽 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10% 이상의 수요 증가세를 보여 시장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의 PVC 시장규모는 지난 2003년말 기준으로 7백만톤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매출비용도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업체별로 평균적으로 11% 이상 증가해 PVC 레진 판매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4분기 PVC 평균 판매가격(Headline Price)은 2003년도 1/4분기보다 톤



당 15% 이상(1백유로) 올랐으며, 2/4분기 중에 만도 8.6%나 인상됐다.

실질적으로 올 1월 유럽의 PVC 가격은 톤당 7백유로 선에서 매매가 이뤄졌으나 2월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해 2월에는 평균 가격이 7백60유로 선으로 뛰었고, 3~4월에는 7백90유로, 그리고 5월부터는 8백유로 선을 훌쩍 뛰어넘어 6월 현재 기준으로는 8백40~8백50 유로 선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유럽 화학제품 시장 전문조사 기관들은 석유 가격이 불안정하고, 유럽 및 미국 등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04년도는 물론 2005년 중반까지 PVC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압박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유럽 시장내 PVC 레진가격이 미국보다 톤당 거의 70~80유로 이상 높게 책정돼 있고, 아시아 시장에서는 지난 4월 7백40유로 고점으로 판매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유럽 시장내 판매가격도 상반기를 기점으로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日, JGAS 2004 개최 인쇄 매체를 위한 요구의 창출

JGAS(Japan Graphic Arts Show)가 '인쇄 매체를 위한 요구의 창출, 네트워크 개발과 파트너 발견'이라는 모토 아래 일본 도쿄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지난 달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됐다.

10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된 이 전시회

는 일본인쇄협회 주최로 열렸으며 도쿄인쇄산업 협회 등이 참여했다.

JGAS 개관을 알리는 테이프 컷팅에는 일본 인쇄산업의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코헤이 아마모토 하이델베르크 재팬의 대표가 개관 연설을 했다.

독일에서 막을 내린 드루파 2004 전시회가 끝난지 얼마 안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JGAS는 하이델베르크 재팬에게는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시회 기간을 통해 획득한 주문은 약 2천만유로이며, 가계약의 경우 약 3천만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큐슈에서 올라온 인쇄인의 경우 스피드마스터 SM102-8P와 함께 이미지 콘트롤, GTO52 1대와 폴라 재단기를 한번에 주문을 하기도 했다.

'프린트 바이어 프로젝트' 중 가장 핵심인 SFC(super fine colour) 인쇄인 모임은 대부분 하이델베르크 스피드마스터 8도 이상 인쇄기를 보유한 인쇄인들로 'super fine colour' 솔루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드루파 이후에도 일본 시장에 맞는 솔루션을 선보임으로써 높은 관심을 끌었던 JGAS는 다수의 주문 획득 등으로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中, 석유화학 무역수지 적자폭 지속 확대 원유 적자 주요원인

금년 들어 중국 석유화학제품의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석유화학공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석유화학업종의 수출입 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35.7% 증가한 7백23억3천만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수입액과 수출액은 5백억5천만달러와 1백81억8천만달러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41.9%와 20.2% 증가했다. 수입이 수출대비 21.7% 높은 수준을 보이며 무역적자는 전년동기대비 56.1%나 증가한 3백59억8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상반기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무역수지 적자 중 원유, 합성수지 및 유기화공원료 등 3대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0.3%, 24.8%와 21.5%이다. 특히 원유의 무역수지 적자는 1백44억9천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7.1%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올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석유제품 및 석유가공제품의 수출입액은 2백36억2천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2.1% 증가했고 화공제품의 교역액은 4백87억1천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2.8% 늘어났다. 또한 올 상반기 정제유의 무역적자는 28억6천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억3천만달러(지난해에 비해 2.4배 증가) 증가했다.

금년도 중국의 석유화학공업제품의 큰 적자발생은 중국내 자원 수급현황, 국제유가 및 수출입 정책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중국의 원유 수입량과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39.3%와 57.2% 증가한 6만1천25만톤과 1백51억7천만달러에 달했다. 상반기 수입량과 수입액의 증가율을 비교하면 수입량 증가율 대비 수입액 증가율이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상반기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금년 6월 중국의 원유수입량과 수입액은 1천1백26만톤과 3백6억 달러로 수입량 증가율 47.2%과 비교해 수입액 증가율은 98.2%에 달했다.

이렇게 중국의 원유수입 증가에 따라 중국의 원유수입 의존도는 지난해 36.1%에서 올 상반기 42.5%로 크게 상승했다.

또한 중국의 수출환급률 인하정책으로 인해 올 상반기 정제유의 수출량은 감소하고 수입량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디젤유는 중국내 발전용 석유수요가 크게 늘어나 수입량도 크게 늘어나면 금년 상반기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1백72.6% 증가한 1백13.8만톤에 달했다. 반면 수출량은 뚜렷하게 감소, 전년동기대비 78.1% 감소한 25.9만톤에 불과했다.

중국정부의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전자재 등 과열산업에 대한 긴축정책실시로 하반기 이들 석유화학산업 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8%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생산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내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세에 따라 중국의 원유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내 원유생산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원유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중국의 원유수입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K]